



독자가 쓰는 2004 지상캠페인 한국 불교 달라져야 한다

‘불교문화’ 발전의 틀은?

분란을 꾸준히 읽고 있는 독자로서는...

서 ‘충분한 기회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문화적 패러다임’이 사회공간을 이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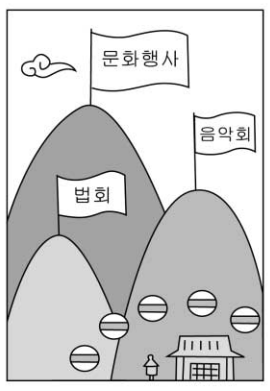
둘째, 각 종단 혹은 범불교계 차원에서 양질의...

셋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문화콘텐츠를 장기적 안목에서 개발하는...

좋은 기획은 충분한 시간과 전문 기획역량...

문화행사, 음악회, 법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정부에서는 주요 문화정책 중 ‘문화향유권의 증진’...



장기적 안목에서 콘텐츠 개발

특성을 살리 범불교 차원 ‘인큐베이팅’ 필요

다.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이런 사업들이...

아울러 불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행사(축제)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통해 이런 사업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발전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이런 현상이 ‘산사음악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교계의 다른 문화행사들에서도 나타난다...

아울러 불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행사(축제)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현상이 ‘산사음악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교계의 다른 문화행사들에서도 나타난다...

아울러 불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행사(축제)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현상이 ‘산사음악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교계의 다른 문화행사들에서도 나타난다...

아울러 불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행사(축제)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12월22일 공주 마곡사 인근 현장에서 거행된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기공식. 사진=박재원 기자

“21세기 불교문화 여기서 꽃피리”

조계종 전통문화산업지원센터 기공

22일 마곡사 인근

한국불교 미래를 개척해 나갈 전통문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기공식이 12월 22일 공주 마곡사 인근 현장에서 봉행됐다.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공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범장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첫 삽을 뜨게 되는 지원센터는 1700년 한국불교 역사에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앞으로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을 온 인류에게 알리기 위한 문화산업 전초기지로서 연구 프로그래밍과 상품개발, 연구활동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동제 문화관광부 장관도

“1700여년 역사의 한국불교에는 문화산업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있다”며 “불교계와 정부가 협력해 불교문화콘텐츠를 산업화한다면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불교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5번지 일대에 건립될 지원센터는 2004~2006년 3년간 국고 122억원, 자부담 122억원 등 총 24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대지 9천여평 건물 4천여평으로 조성된다. 지원센터는 크게 △교육 및 연구

수시설 △국제간화선 체험센터 등 전통불교 수련시설 △연구시설 △공연시설 △불교문화 정보화 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꾸며진다.

여기에서는 조계종 스님 및 신도, 불교단체, 문화예술단체들의 교육과 연수를 개발·유치하게 된다. 또 무형의 유산을 문화산업으로 개발하고, 불교문화 정보화 사업을 담당, 각종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간화선 체험센터 등에서는 한국 선불교상을 내·외국인들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 기동 기초자료수집 설문조사 등 착수

지난주 본지가 보도한 불교학 박사학위 이수자들의 활용방안과 관련, 동국대 불교대학의 위기의식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가 재단차원의 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 영담)는 최근 동국대 교수, 학생, 졸업생 등 불교학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불교대학 발전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설립회가 조사한 불교대학 학생들의 의견 조사에 이어 졸업후 사회진출문제까지 광범하게 다루고 있다.

불교대학발전위원장 영담 스님은 “2005년 신학기 개강 시점에 맞춰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지도교사 양성이 급한 숙제” 파라미터, 활성화 세미나서 지적

“지도교사 양성” 보다 많은 교육 기회 제공 등이 파라미터 캠프의 활성화 선결과제다.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된 ‘파라미터 캠프 활성화와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제자 박영동 교법사(명성여교), 김한기 교감(은석초등학교)과 지정토론자 김홍섭(보문교), 권진영 교법사(명성여교), 김인영 양(동국대 불교학전공 3), 김대철 (군대부고 3) 등은 지도교사 문제 선결이 캠프 활성화에 직결되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영동 교법사는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사전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차별화 등을 지적했다. 김한기 교감은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절한 장소, 전문 지도교사 활용이 캠프 활성화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올 한해 ‘돈독한 관계’ 형성 남북불교 “새해여 오라”

‘조선불련무역회사’ 설립 등 활기 전망

2004년 금강산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 복원, 용연역 폭발 사고 구조활동 등을 통해 돈독한 신뢰관계를 쌓아온 남북불교계가 2005년부터 본격적인 밀월관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와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불교단체인 평불협과 JTS 참여불교운동본부 대표들은 12월 14~18일 중국 북경에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대표들과 각각 회동을 갖고, 내년도 남북 불교교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번 만남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지만 양측간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 활성화를 약속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불교계 안팎의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월 황병준 조불련 부위원장

로 했다. 조불련은 종단협 소속 종단 대표자들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당국에 적극 건의키로 하는 한편, 남한 불교계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 북측 대표단을 초청하는 것을 공동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천태종은 현재 추진 중인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를 내년 봄까지 마무리하고 천태종 불자들의 방북을 추진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JTS와 평불협, 참여불교운동본부는 물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JTS는 나진 선봉지구 개발에 필요한 건설자재, 운송수단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북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나

이 이 임직한 北 北 정보전시·교차방문 지원사업 확대 ‘의견일치’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JTS는 북한 이 끌어 나

진 이의 나 지역 확대 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JTS는 북한 지원을 북한

갈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신인 서기장에 임명된 정서정 스님, 조불련 신도회 라영식 회장, 조불련 평양시위원회 서정민 위원 등이 이 자리에 참석, 남북 불교 교류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종단별 사업으로는 조계종이 내년 10월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에 맞춰 북한 성보문화재를 전시하는 것을 조불련과 추진하기로 했다. 정서정 서기장은 “문화재 전시는 문화재보존지도국과 당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북측 성보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남측 불자에게 선보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협과 진각종, 천태종은 조불련과의 남북불교 대표 서울-평양 교차 방문을 추진키

개발 인프라를 확보하는 쪽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조불련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 조불련에 불교교류를 통해 남북 동질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제안, 조불련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평불협 회장 범장 스님은 “조선불련무역회사를 통한 김치와 생활용품 및 불교용품품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을 통해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조선불련무역회사의 설립이다. 이 회사는 앞으로 남북한 불교계의 물자 및 불교용품 교류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북한 타종교단체도 비슷한 성격의 회사를 설립하려다 실패한 점으로 볼 때, 북한 당국이 남북불교 교류에 거는 기대감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강유신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www.buddhanews.com

大韓佛教 曹洞宗 任員. 佛紀 2548年(2004年) 12月 9日 第33次 中央 定期 宗會에서 宗團 幹部 스님들의 職責을 公告합니다. 宗正 尹智明, 副宗正 催諸空, 宗正司書室長 釋光慧, 僧正院長: 韓春潭, 僧正委員: 催圓峰, 蔡龜岩, 安松峰, 鄭戒云, 陳惺雲(無願). 總務院長 朴心月, 副院長 宋德性, 企劃室長 金統元, 事務總長 金法空, 教務部長 釋光慧, 財務部長 李法蓮, 糾正部長 嚴法華, 教育部長 張顯空.

宗團 害宗 行爲者 擄奪 度牒 公告. 大韓佛教 曹洞宗 宗憲 第18條 ④항, 宗憲 僧正院法 第26條 ②항 ④항, 宗憲 第105條 ④항의 ①, 宗法 中 中央 宗會法 第16條 ②항 ③항과 第17條 ⑤항에 해당하므로 非常 對策 委員會와 第33次 定期 中央 宗會에서 滿場一致로 可決 上記 3人을 西紀 2004年 12月 9日字로 擄奪 度牒 되었음을 公告합니다. 佛紀 2548年 (西紀 2004年) 12월 14일 大韓佛教 曹洞宗 總務院長 朴心月(德潭)